

■ 수능 D-30 마무리 학습 전략

틀린 문제 다시보자

수능시험에 딱 30일 남았다. 마음은 급한데 학습은 부진한 것 같아 지치고 페이스를 놓치기 쉬운 시기이다. 하지만 학습량에 대한 욕심은 부담만 기증시켜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의 도움으로 시기별 마무리 전략을 살펴봤다.

▲D-30~D-12(10월 31일까지)=약점 보완에 주력해야 할 시기다. 상위권 수험생은 학습량에 치중하지 말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선별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위권 대학은 수리영역의 변별력이 학습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므로 인문계는 확률과 통계 단원의 학습에 집중하고, 자연계는 공간도형 및 벡터 부분을 주의 깊게 학습해야 한다.

중위권은 수능기출문제,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틀린 문제 위주로 학습한다. 중위권 수험생 역시 수리영역의 변별력이 큰 편이기 때문에 실생활문제, 심화문제 등 4점짜리 출제유형에 대해 학습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하위권은 영역별 개념 정리에 치중하는 게

중요하다.

▲D-11~D-2(11월 10일까지)=실전 적응에 주력할 시기다. 이 시기부터는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본인의 수준을 고려해 모의고사 문제지를 선택하고, 남은 두 번의 일요일에 실제 수능과 동일하게 시간을 안배해 문제를 풀어본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산수동~원효사~서석대(11.8km)까지 무등산 옛길 전구간 개방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무등산 옛길을 제주도 올레길, 리산 둘레길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도보 길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광태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옛길을 직접 탐방한 뒤 “100%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옛길에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조금이라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곳을 이용하는 등산객들도 자연생태의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옛길 2구간(원효사~서석대)에 위치한 금곡동 제철유적지를 확대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 임진왜란 당시 김덕령 장군이 창과 칼을 만들었다는 주검동(鑄劍洞)을 비롯 500년 전부터 철기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제철유적이 부근



10일 무등산 옛길 전 구간 개방 행사에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이 원효사 부근 옛길 2구간 입구에 설치된 기념비를 제막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에는 당시 제작된 철기나 그 과정에서 나온 첫덩어리 등이 그대로 방치돼왔다. 시는 사적지 지정 등을 통해 이를 무등산의 대표적인 역사자원으로 조성해 옛길의 가치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동문지터 등 도로 횡단구간에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보행 육교를 설치하는 한편, 제4수원지(청암교) 상류에는 60~70년대에 짓고 땅 대신 놓여었던 철제 라이드(Rath) 일명 ‘뽕뽕다리’를 놓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수동 진입로를 확장해

시민·외지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탑방기 공모를 정례화해 ‘옛길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시키는 한편, 옛길 구간 별로 이야기를 붙이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추진한다.

임희진 무등산관리사무소장은 “무등산 옛길은 자연생태를 그대로 간직한 숲길을 따라 도보로 해발 1,100m 까지 오를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도보 길보다도 월등한 경쟁력을 자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최근 아동 성폭행 범죄인 ‘조두순 사건’으로 학교 인근 지역의 아이들 안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학부모들이 직접 ‘아이들 지키기’ 활동을 펼고 있어 화제다.

광주 유덕중학교 학부모 28명으로 구성된 ‘학부모안전지킴이’는 지난해 6월부터 매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서구 유덕동, 광천동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4~5명으로 조를 이뤄 팔에는 완장을 찬 채 경광등과 손전등을 들고 불량학생이나 우범자들이 주로 등장하는 장소를 돌며 지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 유덕중 학부모 28명

매일 밤 광천동 일대 순찰

이 일대에는 초교 2곳, 중학교 1곳이 있는데, 최근 원룸, 유흥시설 등이 한꺼번에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급증,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곳이다. 이에 유덕중 학부모들은 지난해 6월 자발적으로 ‘안전지킴이’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결성 초기엔 ‘지킴이’가 주로 여성이다 보니 무시 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폭행을 당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는 열정으로 벼랑 끝에, 이를 지켜보던 유덕중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면서 순찰활동이 강화돼 우범 지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최종화 유덕중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학부모와 학교, 지역 경찰이 삼위일체가 돼 노력한 덕분에 안전한 등하굣길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물 06시 36분 해진 18시 02분

달밤 1시 1분 달점 14시 16분

아침 쌀쌀… 한때 빗방울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	구름 조금	12/22 C
목포	구름 많음	14/21 C
여수	흐린 뒤 맑음	17/22 C
완도	흐린 뒤 맑음	14/21 C
구례	구름 조금	10/23 C
해남	흐린 뒤 맑음	10/22 C
장흥	흐린 뒤 맑음	10/22 C
고흥	흐린 뒤 맑음	12/24 C
순천	흐린 뒤 맑음	13/23 C
영광	구름 많음	10/21 C
진도	맑은 뒤 맑음	13/22 C
전주	맑은 뒤 흐림	10/23 C
남원	구름 조금	7/22 C
옥산도	구름 많음	17/20 C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晴朗 0.5~1.0m 주의 낮음

〈오전〉 바다

종류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일비단	북서~북	0.5~0.5m
만비단	북서~북	0.5~1.0m

낮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종류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일비단	북서~북	0.5~0.5m
만비단	북서~북	0.5~1.0m

낮음 주의 낮음

◇주간날씨

날짜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날씨	최저/최고 13/21	14/22	11/22	12/21	12/20	11/22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홈페이지: www.knu.ac.kr / 대학원 605-1114

전화번호: 070-756 21:05 13:18

여수 03:17 09:23 23:05

이 과학과 음악 등의 공개수업을 한다”고 밝혔다. 쓰쿠바소학교는 일본에서 ‘교육연구와 수업기술의 1번지’로 통하는 학교로 ‘수업의 달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날 공개수업에서는 사사기 아끼리 교사가 송원초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물건과 무기’를 주제로, 구마미 마키오 교사는 ‘리듬’의 의미를 가르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